

“세탁기 관세 부과 땀 부메랑 되어 美 일자리 위협”

삼성·LG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주장

美 주정부 나서 반대입장 표명
관세 부과는 소비자 충격 초래
현지 일자리 창출 ‘헌신’ 강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미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한 도시의 가전제품 판매장에 월플 세탁기와 나란히 전시된 LG전자, 삼성전자 세탁기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미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공청회는 무역 관련 부처가 속한 미국 무역정책위원회(TP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USTR가 마련한 자리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물론 미국 주정부까지 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존 헤링턴 삼성전자 미국법인 선임 부사장은 이날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베리에 있는 공장은 완전히 통합된 생산설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에 따른) 관세는 뉴베리 공장, 우

리아 거래하는 소매업체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장을 위한 세탁기의 대부

분을 뉴베리 공장에서 공급할 계획이긴 하지만 이를 하룻밤 사이에 할 수는 없다”며 “뉴베리에서 생산을 늘려가는 동안 우리 소매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모든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려면 일부 세탁기를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링턴 부사장은 “어떤 종류의 관세든 그 궁극적 영향은 결국 미국에서의 생산과 고용, 미국 소비자들에게 ‘루즈-루즈(lose-lose)’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프레일리 삼성전자 사우스 캐롤라이나 가전공장 매니저도 공청회에서 “우리는 이미 504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그들 중 90%는 뉴베리나 그 인근 지역에서 고용된 현지인들”이라며 “세탁기 생산라인이 모두 가동되는 2018년 말까지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레일리 매니저는 “하지만 이는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삼성의 수입량을 줄이는 관세는 (뉴베리 공장의) 점진적인 생산량 증대나 생산 이전 전략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LG전자도 공청회 이후 내놓은 성명

을 통해 “LG와 삼성 모두 미국에서 세탁기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면 북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LG와 삼성의 세탁기 중 수입분은 30%에서 4%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비록 ITC가 120만대의 수입 쿼터를 권고했지만 LG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는 미국 정부가 자기 익숙한 차리려는 월플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제안은 테네시주에 해롭고, 미국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며 미국 경제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알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주요인사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궤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려... 도미노 가격인상 현실화

KT&G ‘핏’ 가격인상 검토 중

궤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으로 가격 상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배업계는 가격 인상 배경으로는 담뱃세가 3000원에 달하고, 소매점 수수료가 약 10%인 점을 고려해 원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결정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담배의 89%인 750원으로 인상되는 등 궤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모두 1247원이 올랐다. 현재 궤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곳은 가격을 인상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4일 KT&G에 따르면 궤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글로



필

/각사

부과되는세금 인상으로 ‘필(Fit)’의 전용 담배 ‘핏(Fiit)’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KT&G 관계자는 “궤련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제세부담금이 모두 인상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G는 궤련형 전자담배시장에서 후발주자로 공격적 가격정책으로 점유율

을 확보하려 했지만 세금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됐기 때문이다.

KT&G가 가격을 올리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의 ‘글로(glo)’도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BAT코리아 측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IQOS)’ 전용 담배 ‘히츠(HEETS)’의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 바 있다.

KT&G와 BAT코리아는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가격 인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필과 글로가 아이코스보다 점유율이 낮아 인상 시

점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궤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궤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1위 아이코스가 히츠의 가격을 45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향후 경쟁사의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체 담배시장에서 약 1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두업체가 가격을 선점한 이상 그 가격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전 담뱃세 인상으로 벌어졌던 ‘담배 사재기’가 궤련형 전자담배에도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세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애연가가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에 한보루씩 구매를 하거나 다른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2~3갑씩 구매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담배 사재기를 우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진도 6.3에도 끄덕없다

KTX, 보강·성능 개선 7.3兆 투입

KTX와 지하철 등 철도시설 보강과 성능 개선에 5년 동안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부산 지하철에도 국비 57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2018~2022)’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국토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단’을 꾸려 전국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 등급은 C등급(보통·3.33점/5점)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는 C등급(3.29점),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3.62점)이었다.

국토부는 중장기 개량투자를 통해 철도

시설 노후율을 작년 기준 37.5%에서 2022년 30.0%로 낮추고, 2027년에는 24.0%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 개량투자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4조1093억원을 집중 투자해 안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1~4호선과 부산지하철 1호선 등 개통 30년이 넘는 도시철도 보강을 위해 57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진·홍수 등에 대비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조2194억원을 투입한다.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며 필요성이 제기된 철도 내진성능 강화는 내년까지 모두 완료한다. KTX 시설도 당초 진도 5.5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진도 6.3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내진성능 보강에 나선다.

/이규성 기자 peace@

정성립 “파괴적 혁신으로 첨단 조선소 만들자”

(대우조선해양 사장)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만들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4일 시무식에서 “올 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가는 도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매출과 수익 또한 최적화된 회사의 규모에 맞게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강세, 신규 수주 제품 가격 하락, 자재비 인상과 원가에서 차지하는 고점비 증가 등을 꼽으며 흑자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 사장은 ▲파괴와 창조 ▲프로세스·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영체제 ▲수익과 품질 중심 내실 경영 ▲자부심 넘치는 대우조선해양(DSME) 등 네 가지 경영 방침을 전했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서는 가격과 기술력에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한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우리도 첨단 조선소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성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역량을 모아 프로세스로 만들고 시스템화하지 못해 노후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표준과 절차에 기반한 업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사장은 희생의 기회를 준 국민들의 믿음을 잊지 않고 회사를 튼튼한 기반 위에 다시 올리겠다는 각오로 올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향한 외부의 시선이 굵지 않으나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 속에서 희망을 봤다”며 “그렇기에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뒤돌아섰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 안전과 윤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것을 부탁한다”며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항상 유지한다면 회사의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문 기자 ysw@